

研究論文

한국 종립 대안학교의 종교교육과 대안성

김철주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공학 전공
kcjoo@kangnam.ac.kr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종교학 전공
03250@aks.ac.kr

- I. 머리말
- II. 대안학교운동의 흐름
- III. 대안학교와 종교
- IV. 대안적 종교교육과 대안성
- V. 맺음말

이 논문은 강남대학교 2010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I. 머리말

비교적 최근에 홈스쿨링에 관한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개신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홈스쿨협회를 중심으로 홈스쿨링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또한 주변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의 진학을 위해 대안학교를 찾아가는 학부모의 모습이 비교적 많아졌다. 대안학교들이 점차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을 선전하면서 학부모들이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 담론의 호명 주체가 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이런 주체들이 많아진다면 대안학교 수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교육은 근대적인 공교육과 학교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대안적 실험학교 형태로 시작되었다. 서구의 경우, 실험학교 형태는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1919년), 영국의 서머힐(1921년) 등 1920년대 전후에 확인된다. 1970년대 전후에는 『학교는 죽었다』 등과 함께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 담론이 형성되면서 대안학교운동이 확대된다. 1990년대부터는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보인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공교육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협약(charter)을 맺어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립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 등장한다.¹⁾ 또한 공립학교에서 특별 주제에 관한 집중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거주지에 따른 스쿨 존(school zone)과 무관한 학생을 끌어당기는(magnet) 마그넷스쿨(magnet school)도 확산된다.²⁾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부터 대안학교의 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한국 대안학교 1호인 간디학교가 2001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후 2010년까지 인가·비인가 대안학교를 합치면 대안학교의 수가 200곳 이상으로 늘었다고 한다. 또한 ‘문제아가 가는 학교라는 꼬리표’도 약해졌으며, 학부모도 자녀의 입시·취업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불신하면서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의 대안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추세라고 한다.³⁾

1) 현병호, 「대안교육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전망」, 『진보평론』 10(2001), 103-104쪽.
2) 마그넷스쿨 지원(www.magnet2528.com). 마그넷스쿨은 차터스쿨처럼 공립학교 개혁 모형이지만, 차터스쿨에 비해 교육비가 높으면서도 학업성취도 향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이병환, 「미국 대안교육의 다양화 경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 『교육행정학연구』 26-1(2008), 172쪽.
3) 「대안학교, 고민이세요?」, 《중앙일보》, 2010년 6월 30일자.

한국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종립 대안학교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영산성지고등학교, 독수리기독교학교, 새이레기독교학교, 한국기독교사관학교, 로고스기독교학교, 실상사 작은학교, 대구대교구 산자연학교 등의 종립 대안학교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인가된 대안학교인 특성화학교들도 대부분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종립 대안학교 측은 일반학교(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런 비판은 기존에 비해 종립 대안학교의 수가 증가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식은 종립 대안학교의 규모, 종교와 대안학교·대안교육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종립 또는 특정 종교관에 입각하여 설립·운영되는 대안학교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현실, 그리고 이들이 종교교육을 진행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다른 문제의식은 종립 대안학교가 공교육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의 대안성도 제시하는지의 여부이다. 종립 대안학교에서 종교교육은 학교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종교교육이 일반학교(미션스쿨)의 종교교육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만약 종립 대안학교 측의 종교교육이 미션스쿨의 경우보다 '대안적'이라면, 그 대안성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런 문제의식들을 토대로 한국의 종립 대안학교들이 다종교·다문화 사회의 상황에서 취해야 할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대안학교운동의 흐름을 검토하면서 대안학교운동과 종교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대안학교와 종교의 연관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 일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대안교육의 일반론에 비추어 종립 대안학교들이 취해야 할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 글이 종립 대안학교의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대안교육과 종교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I. 대안학교운동의 흐름

대안학교와 종교의 연관성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으로 대안학교운동의 흐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1980년대 이후 탈학교론이 한국사회에 소개되면서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민간 차원의 모임들이 형성되었고, 특히 1990년대에 교육 붕괴 또는 교실 붕괴 담론이 그 이전⁴⁾에 비해 더욱 확산되면서⁵⁾ 대안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와 함께 문민정부 이후부터 ‘특성화학교’ 형태로 대안학교를 수용하는 정책이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대안학교·대안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이해 사이에는 다소의 간극이 보이고 있다. 대안학교운동의 흐름을 민간 차원과 국가 차원으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간 차원의 대안학교운동

대안교육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민중야학이나 공부방운동 시기를 지나, 1990년대 이후부터 두 가지 흐름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⁶⁾ 하나는 제도권 학교교육의 틀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전일제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1995년 2월에 모인 ‘새로운 학교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그 모임의 구성원들은 학교교육의 내적 고층에서 출발한 부류(학교체 지향)와 사회구조제도의 회의에서 출발한 부류(공동체 지향)로 구분되지만, ‘생태주의적 세계관’이나 공동체

4) 「時愈한 教育改革」, 《경향신문》, 1960년 5월 17일자; 「師道와 教權」, 《동아일보》, 1975년 7월 31일자; 「教育을 爲한 制度를」, 《동아일보》, 1975년 8월 30일자 등.

5) 「무너지는 교실(1)」, 《경향신문》, 1999년 5월 7일자; 「무너지는 교실(2)」, 《경향신문》, 1999년 5월 8일자; 「무너지는 교실(3)」, 《경향신문》, 1999년 5월 9일자; 「무너지는 교실(4)」, 《경향신문》, 1999년 5월 10일자;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경향신문》, 1999년 9월 21일자; 「수업시간 ‘쿨쿨’ [...] 휴대전화 장난 [...] 빈 가방 등교 教室이 무너지고 있다」, 《동아일보》, 1999년 10월 27일자; 「교실 붕괴’ 대책은 없나」, 《동아일보》, 1999년 10월 29일자; 「교실 붕괴’는 학교-가정 모두의 책임」, 《동아일보》, 1999년 11월 1일자; 「KBS2 추적60분 ‘교실 붕괴’ 후속편 방영」, 《경향신문》, 1999년 12월 2일자; 「배우고 싶지만 학교는 싫어’ 대안교육 찾은 아이들 글모음」, 《동아일보》, 1999년 12월 25일자 등.

6) 송순재, 「한국에서 ‘대안교육’의 전개과정 및 성격과 주요 문제점」, 『홀리스틱교육연구』 9-2(2005), 36-41쪽.

적 삶, 혹은 자율·자유를 기초로 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일치점을 보인다. 1996년 겨울의 세 번째 모임에서 모임 명칭도 ‘새로운 교육’에서 ‘대안교육’으로 개칭된다.

다른 하나는 제도권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육문제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1995년 7월에 서울평화교육센터가 추진한 ‘대안교육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대안교육은 학교제도의 ‘밖’, ‘결’, ‘안’의 변화까지 포함하여 근대적 가치관에 대한 문명 비판적 입장의 교육 변혁이라는 의미이다. 이 모임은 1997년부터 ‘교육사랑방’ 모임 등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학교교육 가능성에 관한 연구 진행으로 이어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학교의 뿌리는 네 가지로 지적된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중반에 확대된 ‘또 하나의 문화’ 운동(1984년), ‘자유학교 물꼬’(1985년) 등의 방과후학교, 주말학교,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교 형태의 교육이다. 1990년대에는 이런 캠프식 프로그램들이 생태적 삶의 체험 등을 목적으로 전국에 확산되면서 대안학교의 등장이 유도된다.⁷⁾ 실제로 이러한 흐름은 1995년 2월의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17단체의 47명)으로 연결되어, 대체로 생태주의, 공동체적 삶, 자유와 자율을 중시하는 교육이라는 가치들을 공유한다. 이후 이 모임은 전국 단위의 ‘대안교육연대’의 결성이나 『민들레』 등의 잡지 출간 등으로 이어진다.⁸⁾

두 번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 삶과 동떨어진 교육과정, 교육 불평등,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과 학교재정의 불투명성 등을 비판하며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운동이다.⁹⁾

세 번째는 1994년에 성미산에 설립된 한국 ‘제1호 공동육아조합’에서 시작된 공동육아운동이다. 이 운동은 2001년에 한국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산어린이학교), 2006년 12월 말에 61개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사단법인)’의 설립 등 초등 대안학교의 주요 뿌리가 된다.¹⁰⁾

7) 교육인적자원부, 『대안학교백서(1997-2007)』(2007. 7), 37쪽.

8) 위의 책, 39-40쪽.

9) 위의 책, 38쪽.

10) 위의 책, 38쪽. 최초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자 방과후학교를 열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중고 통합과정의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를 열었다고 한다(같은 책, 38쪽).

네 번째는 1995년경에 송순재, 정유성, 고병헌 등의 학자가 ‘서울평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전개한 대안교육운동이다. 이들은 외국 대안교육의 사례 소개, 대안교육 잡지(『처음처럼』)의 창간, 다양한 모임의 주도 등을 통해 대안교육 담론을 주도하게 된다.¹¹⁾

대안학교·대안교육의 다양한 출발점이 어우러지면서 민간 차원의 대안학교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고, 대안학교의 수도 최근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인가형 대안학교의 수는 초등학교부터 고교에 걸쳐 대안학교의 70%(전국 약 150개) 정도가 된다. 최근까지 이들은 주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도시형 학교, 생태학교·노작학교 등 특정 설립 이념에 근거한 전원형 학교로 유형화되고 있다.¹²⁾

주목할 부분은 대안학교운동에 종교인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종립 대안학교의 수가 증가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0년까지 개신교계 대안학교의 수만 120개 정도이다.¹³⁾ 그 외에 천주교계에서도 대구대교구 산자연학교(개교: 2007. 3.)와 화(花)요일아침예술학교(개교: 2011. 3. 경기도교육청 학력인정 대안예술고교), 불교계에서도 실상사 작은 학교(개교: 2001. 3.) 등을 운영한다.¹⁴⁾ 특히 인가된 대안학교(특성화학교)에서도 개신교계·원불교계의 대안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대안학교운동의 확산 원인에는 학교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학교 활용 정책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는 2006년에 학업중단 학생 등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¹⁵⁾ 이 사업은 벌칙 및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태도를 포함하여, 정부가 비인가 대안학교의 존재를 수용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11) 위의 책, 39쪽.

12) 이혜영·황준성·강대중·하태욱,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9), 66-67쪽. 특정한 교육신념 등을 이유로 국가로부터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규학교로 인가를 받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학생·학부모들을 모집하여 전일제로 운영하는 학교로 정의된다. 법적으로는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를 설립하여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불법기관’에 해당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측에서는 ‘범외기관’이라고 한다.

13) 「대안학교 들여다보니……」, 《중앙일보》, 2010년 6월 30일자.

14) 「가톨릭계 대안학교-행복한 청소년 만들기」, 《가톨릭신문》, 2011년 5월 29일자.

15)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사업, 55개 기관 7억 9000만 원 지원」, 《뉴시스》, 2006년 12월 19일자.

아직까지 대안학교는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데에도 여러 장애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대안학교의 장점은 일단 설립되면 제도상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고 학교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는 여전히 막대한 운영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도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학비, 학력 미인정으로 인한 검정고시 등 여러 장애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¹⁶⁾

2. 국가 차원의 특성화학교 정책

1991년의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문민정부(1993-1998)는 1995년에 다양한 유형의 학교설립 계획을 담은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¹⁷⁾ 학교 시설·설비의 기준을 학교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고, 고교설립준칙주의를 시행하여 다양한 ‘특성화된 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도 그 계획에 포함되었다.¹⁸⁾ 그렇지만 5·31 교육개혁안은 당시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중등학교 중도탈락자의 범위를 증가로 인해 1996년 12월의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과 연동되고, 정부 주도의 학교 설립 정책도 ‘종교단체·사회단체 등 민간의 학교 설립을 적극 유도·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¹⁹⁾ 그 전환은 당시 교육부가

16) 「대안학교」, 《중앙일보》, 2011년 1월 14일자. 가령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과 홈스쿨링은 의무교육법 위반이다. 다만, 실제 처벌 사례가 없고, 고발되어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행정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원칙상 학력 미인정 때문에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일반학교로의 전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실제로는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 별 문제 없이 학생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전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17) 이혜영 외, 앞의 책, 47쪽.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에는 대안학교의 제도권 진입 유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고교설립준칙주의 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된다.

18)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백서』(2006, 11), 69쪽.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설립 방안도 1974년 이후의 고교 학군별 추첨배정제(일명 평준화 정책)의 학교선택권 제약, 국고 지원을 통한 사립학교의 자율성 상실 및 공립과 유사한 운영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자사고 정책은 학군별 추첨배정제에 대한 위협, 고액 납입금이 가능한 계층의 전유물이자 과거의 입시 명문고 부활 등의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같은 책, 5-67쪽). 게다가 기존의 자율학교 제도를 보완한 개방형 자율학교 정책도 도입되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창의적 인재 육성 및 입시 위주 교육의 한계 극복 필요성을 전제로, 학교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대학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하고 대폭적인 자율권을 주어 공교육의 혁신을 지향하는 학교이다(같은 책, 68-69쪽).

19) 위의 책, 69-70쪽.

학교 부적응자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간디학교, 양업고 등 비인가 대안학교와 각종 학교인 영산성지교 등의 교육 효과를 인정한 결과였다.²⁰⁾

문민정부는 1997년 9월과 10월에 '고교설립준칙주의'의 제도화를 위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였다.²¹⁾ 또한 동년 9월에는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특수목적고교를 특수목적고교와 특성화고교로 분리하였다.²²⁾ 교육부는 동년 10월에 <동 시행규칙> 부칙의 특성화고교 설립 안내에 따라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 설립신청 안내'를 공고했는데²³⁾, 당시에 공고된 대안학교는 특성화고교의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1998년 2월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어 특성화고등학교 외에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학교'라는 표현이 처음 명시되었다.²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특성화학교나 자율학교 형태로 제도권에 진입하여 법적으로 정규학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되었던 것이다.²⁵⁾ 다만, 특성화학교의 법적 지위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도·감독하면서 국민교육권의 보장·실현을 위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기관이었다는 측면에서 일반학교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된다.²⁶⁾

20) 이해영 외, 앞의 책, 48-49쪽.

2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정 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 <동 시행규칙>(제정 1997. 10. 11, 교육부령 제700호),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1998학년도 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안내가 명시된다.

22) <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2호), 제6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지칭한다.

23)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70쪽. 당시 공고문은 특성화고교를 '정보고나 디자인고 등 특정 산업이나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조기 양성을 위한 소규모학교', '부적응자 전담교육기관 또는 자연친화적인 소규모 실험학교'로 구분·제시한다.

24) <초·중등교육법>(제정 1997. 12. 13, 법률 제5438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정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 특성화중·고교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제105조). 동 시행령 제76조와 제91조에 따르면, 특성화중학교는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25) 김희용, 「대안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31(2006), 5쪽. 특성화학교는 학군을 넘어 학생 모집이 자유로운 미국의 학교 개혁 모형 가운데 Magnet School의 번역어로 쓰이던 용어이다.

26) 이해영 외, 앞의 책, 52쪽.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대한 문민정부의 정책은 국민의정부(1998-2003) 시기에 대안학교의 특성화학교 전환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와 관련하여 정부 초기인 1998년 3월에는 6개 학교가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최초로 개교하였다. 2002년 3월에는 송학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로서 최초로 개교하였다.²⁷⁾

참여정부(2003-2008)는 2003년 6월에 학교교육 부적응자와 소질 개발을 위한 특별 교육 희망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각종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을 포함한 ‘대안교육의 확대·나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²⁸⁾ 2004년 10월에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에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자기개발 기회 극대화 및 학교 부적응 예방과 학업 중단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그리고 그 세부계획에 ‘대안학교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포함시켰다.²⁹⁾

2005년 3월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각종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수업 및 학년제 등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대안학교 관련 조문’을 신설했으며,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가 각종 학교로 편입하여 초중고 과정의 통합 운영뿐만 아니라 학력인정의 가능성을 부여받도록 유도하였다.³⁰⁾ 당시에 ‘대안학교’가 최초로 법정 용어로 명시되었지만, 그 내용은 학업 중단자나 특성별 교육 수요자에게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학교였고³¹⁾, ‘공교육’을 부정하는 뉘앙스가 담긴 ‘대안교육’은 여전히 법정 용어로 채택되지 않았다. 2007년 6월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³²⁾, 대안학교의 근거 법령이

27)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70쪽.

28)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45쪽; 이해영 외, 앞의 책, 59쪽.

29)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참여복지 5개년 계획(교육복지 부문)』(2004. 10), 4쪽, 14-15쪽, 17-19쪽. 교육 부적응 해소와 관련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등을 활용해 통학 가능한 범위 내의 대안위탁교육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외부 대안 교육프로그램 활용 활성화 및 수업인정 추진’, ‘학교-대안교육기관-청소년상담실 등과의 학업 중단자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도 세부계획에 포함된다.

30)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72쪽.

3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제7398호), 제60조의3.

32)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신규제정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6호). 대안학교는 각종 학교(제60조)와 외국인학교(제60조의2)와 함께 ‘제8절 각종 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와 제91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으로 확대되었다.³³⁾

결과적으로 볼 때, 문민정부가 추구한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정책은 중등학교 중도탈락자의 범죄율 증가 문제의 해소 정책으로, 그리고 국민의정부 시기 이후에 대안학교의 특성화학교 전환과 자율학교 정책으로 연결되었다. 특성화학교 전환으로 대안학교가 ‘대안성’을 상실하면 기존의 학교와 차별성이 약한, ‘또 하나의 다른 학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³⁴⁾, 주로 종립 대안학교들이 특성화학교 전환에 적극 참여하였다. 다만, 참여정부 시기 이전까지 대안학교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가 아닌, 즉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참여정부 시기에 대안학교가 법정 용어가 되었지만, 이것은 공교육과 대립 뉘앙스를 풍기는 대안교육을 제도적 차원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엄밀히 보면, 대안학교도 대안교육보다 특성화교육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특성화학교로서 대안학교는 주로 일반학교의 교육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인식된 셈이다. 현재까지도 ‘대안교육’은 학교교육과 관련된 법정 용어가 아니라 교정 관련 법률에서만 별도로 사용되는 상황이다.³⁵⁾

결국 현재 상황은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이 모종의 딜레마에 놓인 형국이다. 대안학교 측은 재정상의 어려움과 대안성 사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버리고 특성화학교로서 제한된 대안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비인가 대안학교 형태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 측에서는 기존의 공교육에 비판적인 대안교육을 현행 공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포섭할 것인지가 문제점이다.

포함된다. 제60조에 따르면, 각종 학교는 동 규정 제2조제2호(2. 초등학교·공민학교) 내지 제5호(5. 특수학교)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3) 서울시대안교육센터(<http://www.activelearning.or.kr>).

34) 김희용, 앞의 논문(2006), 16쪽.

3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1. 4. 5. 법률 제10541호) 제42조의2(대안교육); 〈동 시행령〉(일부개정 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4호) 제85조; 〈동 시행규칙〉(일부개정 2011. 4. 5. 법무부령 제735호) 제73조. 〈동 법률〉 제42조의2에 따르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과정(‘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한다.

III. 대안학교와 종교

1. 종립 대안학교의 특성화학교 전환

국민의정부 시기부터 대안학교의 특성화학교 전환과 설립 양상이 보인다. 국민의정부 시기에는 각각 13개와 2개,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부터 각각 8개와 6개의 대안고교와 대안중학교가 특성화학교로 개교하였다. 그리고 실용정부 시기인 2009년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는 2개 대안고교와 1개 공립 대안중학교, 1개 중·고 통합학교가 특성화학교로 개교하였다.³⁶⁾

표1-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2011년 6월 현재)

유형	시도	학교명	지정	종별	소재지	법인(대상)	종교별
고등 학교 (23)	부산	지구촌	2002	사립	연제구 거제1동	복음 (재외동포)	개신교 1
	대구	달구벌	2003	사립	동구 덕곡동	덕성	개신교 2
	인천	산마을	2000	사립	강화군 하점면 삼흥리	복음	개신교 3
	광주	동명	1999	사립	광산구 서봉동	동명 (부적응)	개신교 4
	경기	경기대명	2002	공립	수원시 군선구 당수동		
		두레자연	1998	사립	화성시 우정면 화산리	수곡두레	개신교 5
		이우	2003	사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이우	
		한겨레	2006	사립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전인	원불교 1
	강원	전인	2005	사립	춘천시 동산면 원창1리	전인	원불교 2
		팔려	2006	사립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이화	개신교 6
	충북	양업	1998	사립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청주 키톨릭 (부적응)	천주교
	충남	한마음	2003	사립	천안시 동면 장송리	한마음 교육문화 재단	
		공동체비전	2003	사립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선천	개신교 7

36) 표1은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의 ‘정보자료실→학교지원국→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2010년 5월 현재)’을 기본으로, 2011년 6월에 은혜학교(<http://eh-school.sc.kr/index.html>)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윤기중, 『대안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탐구』(한국학술정보(주), 2008), 55-62쪽, 121-122쪽; 서울시대안교육센터(<http://www.activelearning.or.kr/>); 이해영 외, 앞의 책, 68-70쪽; 「대안학교」, 《중앙일보》, 2011년 1월 14일자.

유형	시도	학교명	지정	종별	소재지	법인(대상)	종교별
고등학교 (23)	전북	세인	1999	사립	원주군 화산면 운산리	DA세인 (부적응)	개신교 8
		푸른꿈	1999	사립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푸른꿈	
		지평선	2009	사립	김제시 성덕면 묘리리	원진	원불교 3
	전남	영산성지	1998	사립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영산성지 (부적응)	원불교 4
		한빛	1998	사립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거이	개신교 9
	경북	경주화랑	1998	사립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삼동 (부적응자)	원불교 5
	경남	간디학교	1998	사립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녹색	
		원경	1998	사립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원명 (부적응자)	원불교 6
		지리산	2004	사립	산청군 단성면 호리	학림 (부적응자)	
		태봉	2010	공립	마산시 진동면 태봉리		
중학교 (9)	경기	헌산	2002	사립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전인	원불교 1
		두레자연	2003	사립	화성시 우정읍 화산7리	수곡두레	개신교 1
		이우	2003	사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이우	
		한겨레	2006	사립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전인	원불교 2
		중앙기독	2006	사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중앙	개신교 2
	전북	지평선	2003	사립	김제시 성덕면 묘리리	원진	원불교 3
		전북동화	2009	공립	김제시 성덕면 묘리리		
	전남	성지송학	2002	사립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영산성지	원불교 4
용정		2003	사립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보성		
통합 (2)	경기	은혜학교	2011	사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인	원불교
	충북	GVCS 글로벌 선진학교	2011	사립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개신교

합계 34교: 공립 3(고2/중1)+사립 31(중립 24교). 원불교 11, 개신교 12, 천주교 1

표1은 국민의정부 시기부터 특성화학교로 전환한 종립 대안학교가 적지 않았고, 특히 참여정부 시기에 그 전환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의 실용정부 시기에 그 전환 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종립 대안학교가 특성화학교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 현재, 종립 특성화학교가 공립과 사립 특성화학교를 포함한 전체의 70%가 넘는다는 점은 대안학교와 종교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특성화학교 가운데 종립 대안학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2002년, 2009년, 2010년에 각각 하나의 공립 특성화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정부(지

방자체단체)가 특성화학교의 설립 정책보다 민간 대안학교의 특성화학교 전환 정책을 전개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민간 대안학교 가운데 종립 대안학교의 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전환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다.

대안학교와 종교의 연관성은 종립 대안학교의 설립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안학교조차도 그 배경으로 특정 종교가 지적된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안학교의 정신적 모태라는 풀무농고와 거창고뿐만 아니라 푸른꿈고와 간디고는 종립 대안학교가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된다.³⁷⁾

2. 종립 대안학교의 연대와 종교교육

1998년 2월경에 대안교육협회의 창립 움직임이 보인다.³⁸⁾ 그와 함께 대안학교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관련 협의체들이 창립되기 시작한다.³⁹⁾ 주목할 부분은 종교계도 이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원불교에서는 ‘원불교대안학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신교는 특히 대안학교 연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신교계의 경우, 2000년 11월에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이하 기대협), 2004년 5월에 부산 기대협을 발족한다. 그리고 기대협 등이 주축이 되어 2005년에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하, 기대연), 2010년 1월에 기독교대안교육센터가 창립된다.⁴⁰⁾ 현재 개신교계는 기대협과 기대연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양상이다.⁴¹⁾ 다만, 개신교에 비해 종립

37) 현병호, 앞의 글, 110쪽.

38) 「자유롭게 창의성을 키워요」 98교육캠페인 대안교육(1) ‘대안교육’무엇인가, 《동아일보》, 1998년 1월 5일자.

39) 한국대안학교협의회(2000), 서울시대안교육센터(2001. 4. <http://www.activelearning.or.kr>), 비인가형 대안학교들의 모임인 대안교육연대(2002. 10, <http://www.psaec.or.kr>), 서울 산업정보학교 부설 대안교육종합센터(2003. 1, www.daeancenter.or.kr), 대안교육학 부모연대(2008. 11) 등. 한국대안학교협의회 명칭은 1998년에 특성화학교의 중·고교 교장 모임에서 시작된 후, 2000년부터 사용되었다(초대 회장: 영상성지교 박종문 교장).

40) 기대협/기독교대안교육센터(<http://www.caeak.com>); 기독교대안학교연맹(<http://www.casak.org>)

41) 「영성과 지성의 조화 [...] 기독교 대안학교 부상」, 《국민일보》, 2007년 9월 16일자. 2011년 6월,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의 회원은 42개 학교이다(기독교대안학교연맹: <http://www.casak.org>)

대안학교의 수가 부족한 천주교나 불교 측에서는 아직까지 대안학교의 연대 움직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종립 대안학교들은 대체로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비록 특성화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의 종교재단 학교들에 학내 종교색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⁴²⁾, 오히려 대안학교는 미션스쿨에 비해 종교교과교육뿐만 아니라 종교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⁴³⁾ 실제로 개신교계 대안학교들은 신입생 선발, 학부모와의 관계, 재정 사용 등에서도 신앙적 가치관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아침묵상과 성서일기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채플이나 성경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고 있다.⁴⁴⁾

종교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가된 대안학교, 즉 특성화학교의 경우를 보면, 지구촌교의 2011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에는 입학예배, 고난주간, 부활절예배, 언약성회, 6·25 기념예배, 1학기 봉헌예배, 기숙사에서 취침감사기도회(월·일), 일요일의 개교회예배참석·가족예배 등이 명시된다.⁴⁵⁾ 동명교의 2011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에도 영어예배, 부활절예배, 세족식, 헌신예배, 신앙수련회 등의 종교교육 프로그램이 명시된다. 게다가 학교 홈페이지가 선교단체나 바이블 읽기·쓰기, 찬송가듣기 등의 홈페이지와 연동된다.⁴⁶⁾ GVCS 글로벌선진학교(중·고교 통합 운영)의 경우에도 신앙교육이 중시되어 모든 수업이 기도로 시작되며, 제자훈련, 성경과목, 새벽기도회, 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채플, 학생들의 자체 기도회, 주일학교봉사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⁴⁷⁾

비인가 대안학교는 특성화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과과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체로 신앙교육에 더 많은

www.casak.org).

- 42) 「중학교 과정-졸업생 절반 대안고등학교 진학」, 《내일신문》, 2005년 1월 11일자.
43) 황병준, 「기독교학교에서의 대학입시에 대한 인식-대안학교와 미션스쿨의 비교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20(2009), 283-296쪽.
44) 강영택,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신앙과 학문』 15-1(2010), 44쪽.
45) 지구촌교(<http://glovillhigh.org>).
46) 동명교(<http://kdm.hs.kr>).
47) GVCS글로벌선진학교(http://www.gemgem.org/?menu_no=1); 「GVCS/ 국어, 국사의 과목 영어로 가르쳐」, 《국민일보》, 2010년 11월 23일자.

시간을 할애하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태화국제학교는 신앙교육과 관련된 교과로 ‘기도와 말씀묵상, 예배, 찬양집회, 성경수업, 제자훈련’을 두고 있다. 또한 매 학기를 2박3일 영성수련회로 시작하고, 수업시간에 성경과목을 운영하며, 매일 새벽기도회(자율 참석)를 가진다. 매일 오전 8시에 큐티(Q.T.)를 하고, 수업 때마다 교사와 기도를 하며,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자체 기도회를 유도한다. 그리고 채플·수요예배·주일예배를 의무화하고,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학부모 초청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⁴⁸⁾ 초중고교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웨마기독교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을 보면, 평일 일정에 새벽예배 및 Q.T. 조회 및 반별 Q.T. 방별기도회, 일요일 일정에 새벽예배 및 Q.T. 예배준비, 예배, 찬양예배, 방별기도회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과정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이는 종교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동일하다.⁴⁹⁾

종교교육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종립 대안학교들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종립 대안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정 종교적 가치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분명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도 차이가 있지만, 개신교계 대안학교가 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습능력보다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신앙교육에 동의하는지를 중시하듯이⁵⁰⁾ 종립 대안학교들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학교든 비인가 대안학교든 ‘종교교육을 자유롭게 받고 싶다는 이유’로 입학하는 경우가 오히려 적지 않은 상황 역시 종립 대안학교들의 종교교육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⁵¹⁾

IV. 대안적 종교교육과 대안성

종립 대안학교들도 다른 대안학교처럼 일반학교와의 차별을 위해

48) 태화국제학교(<http://www.thcis.com>); 「태화국제학교. “신앙교육·수준별 영어수업 통해 글로벌 리더 양성」, 《국민일보》, 2010년 11월 22일자.

49) 웨마기독교학교 고등학교 과정(<http://hig.ishema.org>); 웨마기독교학교 중학교 과정(<http://mid.ishema.org>).

50) 강영택, 앞의 글, 44쪽.

51) 「대안학교」, 《중앙일보》, 2011년 1월 14일자.

‘대안성’을 강조한다. 주목할 부분은 그 대안성의 범주에 종교교육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특히 개신교계 대안학교들의 경우, 일반 중립학교(미션스쿨)의 종교교육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아래의 인용문처럼, 미션스쿨이 공교육 내에 머무는 한 ‘온전한’ 신앙교육이 어렵고, 입시나 비리 등의 여러 이유로 정체성을 상실하여 공교육을 자정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 [...] 그러나 미션스쿨이 정체성을 잃으면서 공교육 내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고 같이 떠내러가는 현실……. 현재의 미션스쿨은 전도학교 [...] 즉,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학교……. 입시가 교육구조를 너무 세속화……. 하나님의 온전한 리더를 길러내기 위한 크리스천 학교와 전도학교는 엄연히 구분돼야 [...] 크리스천 학교라면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 교육의 목적 [...]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길러내는 것 [...] 반드시 성경적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⁵²⁾

미션스쿨도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긴 일반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얽매인 상태에서 종교교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감리교 내 미션스쿨을 다니며 설교해봤지만 신앙교육이 잘 안 돼요. 여러 교단과 교회가 운영하는 미션스쿨이 지금처럼 힘을 잃은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부 인사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성경 한 시간 가르친다고 어디 기독교 교육이 되겠습니까?……”⁵³⁾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 착각 세 가지. [...] 둘째, 신앙교육은 공교육 틀 속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 진화론과 무신론적 교육가치, 점수 위주의 현 입시체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굳은 결심 없이는 힘든 일 [...] 미션스쿨에 다니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차선택에 불과하다. 공교육이란 콘텐츠를 담고 있는 미션스쿨과 공립학교의 차이는 채플과 일부 선교활동 등을 빼곤 별반 차이가 없다. 인생과 신앙의 기본을 정립할 시기에 학업의 본질적 이유와 창조질서에 대한 철학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 사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 [기독교 대안학교는 신앙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인격, 학업이라는 가치 아래 신앙 리더 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⁵⁴⁾

52) 「한국의 기독교대안학교-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교장 유용국 목사 “철저한 신앙교육 [...] 밥존스大 등 진학”, 《국민일보》, 2010년 11월 22일자.

53) 「한국의 기독교대안학교-태화국제학교. “신앙교육·수준별 영어수업 통해 글로벌 리더 양성”, 《국민일보》, 2010년 11월 22일자.

54) 「한국의 기독교대안학교. 신앙 [...] 인격 [...] 학업…… 아름다운 어울림 찾는다」, 《국민일

위의 인용문은 종립 대안학교들이 미션스쿨과 분리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미션스쿨과 종립 대안학교를 각각 ‘전도학교’와 ‘크리스천학교’로 분리시킨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양자를 공교육 체계에 성경과목과 예배를 첨가하여 운영되는 학교와 ‘교육활동의 전 영역에서 성경의 원리에 기초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분리시킨다.⁵⁵⁾ 특히 후자를 강조하는 개신교계 대안교육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 대안교육’은 인본주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날의 우리 교육’을 살펴보는 교육에 해당된다.⁵⁶⁾ 그리고 대안학교가 미션스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을 키우는 것, 기독교전문인을 키우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⁵⁷⁾

미션스쿨에 대한 종립 대안학교의 분리의식은 대안학교로서의 자기정체성 형성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리의식이 일반학교의 교육과 개신교 교육의 분리의식으로 확대되면서 일반학교의 교육에 대한 극단적인 문제의식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교육 개방에 따라 세속적인 교육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 교육으로 선점해야”⁵⁸⁾ 한다는 식의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분리의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신교계 대안학교의 일차적인 목적이 ‘복음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제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양육하는 것’ 등으로⁵⁹⁾, 그 교육원리가 하나님의 교육(Educatio Dei)으로 설정되기도 한다.⁶⁰⁾ 종립 대안학교의 분리의식은 현실적으로 개신교계 대안학교들이 미션스쿨에 비해 신앙교육을 강조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개신교계 대안학교들이 좀 더 강한 신앙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단순하고 확일적인 태도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신교

보), 2010년 11월 22일자.

55) 광광, 『신앙공동체를 지향하는 기독교대안학교』(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25쪽, 28쪽.

56) 김선요, 「기독교 대안 교육 운동에 대한 소고(小考)」, 『백석저널』 2-3(2002), 61-69쪽.

57) 황병준, 앞의 논문, 293쪽.

58) 「한국의 기독교대안학교-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교장 유용국 목사 “철저한 신앙교육 [...] 밥존스대 등 진학”」, 《국민일보》, 2010년 11월 22일자.

59) 광광, 앞의 책, 25쪽, 28쪽.

60) 정병완,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원리와 그 실천방안: 하나님의 교육을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박사논문(2009), 56-210쪽. 정병완은 기독교대안학교를 “학문과 삶, 문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섭리를 고백하는 교육”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로 정의한다(같은 논문, 56-114쪽).

계 대안학교의 종교교육에서 이런 획일적인 태도가 주류 경향이라는 점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다만, 종립 대안학교가 특정 종교교육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학생 선발 과정에서 중시하는 한,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종립 대안학교에 특정 종교교육을 희망하는 한, 앞으로 도 종교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일반학교에 비해 적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개신교계 대안학교들이 대안학교로서 일반학교와 구분하고, 종립 대안학교로서 일반 대안학교들과 구분한다면, 이러한 자기정체성은 다종교·다문화 사회의 의미를 감안하여⁶¹⁾ 성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상호관용’과 ‘상호보살핌’, 그리고 개방된 공동체성 등이 요청된다는 점을 감안하면⁶²⁾, 종립 대안학교의 현재 상황이 미래의 한국사회를 준비하는 교육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립 대안학교는 대안적 교육공동체라는 존재라는 의미의 퇴색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신교계 대안학교의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로 의례(예배)·기도회·큐티(Q.T.)가 중심이다. 이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종교적 체험’이나 내면의 성찰을 통한 ‘종교적 삶’의 통찰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한 종교교육의 특징은 신앙교육, 영성교육, 종교적 인성교육⁶³⁾의 혼재 형태이면서도 여전히 특정 종교를 모든 종교의 정점에 놓는 태도를 지닌 특정 종교인을 양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데에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을 이념으로 설립된 종립 대안학교에서 특정 종교만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일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형태도 혼재 형태로서 특정 종교만을 위한 교육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⁶⁴⁾, 개신교계 대안학교의 종교교육의 방향은 그 정도만

61) 김철주·고병철, 「중등학교 다문화교육 교과서의 활성화 방향-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2011), 112-119쪽; 「국가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교육과 ‘종교’ 교과교육」, 『종교연구』 61(2010), 102-116쪽.

62) 이수안, 「지속 가능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로서 ‘상호관용’과 ‘상호보살핌」, 『문화와 사회』 7(2009), 87-88쪽.

63) 강영택, 앞의 글, 44쪽. “그리스도를 닮아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섬기는 제자를 양육하고자 하고, 기독교정신으로 인성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를 뿐 일반 종립학교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는 한, 개신교계 대안학교가 스스로를 일반학교와 구분하거나,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을 비판하는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모든 상황을 특정 종교에 입각하여 해석·수용하는 인간 존재를 양성하려는 종교교육은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호성’을 지닌 인간 존재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즉 상호성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존재를 양성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종교적 세계관을 정점에 두는 종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종교와 관련된 제반 결정권과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와 관련하여 아래의 인용문처럼 종립 대안학교들이 학교의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 특정한 종교를 가르칠 때 학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이 이미 지적되는 상황이다.⁶⁵⁾

이 학교들은 학교교육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보다는 종교적 세계 일반에 눈 뜨게 하는 것, 즉 종교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끌어 줌’은 중요한 종교들을 모두 치우치지 않게 가르친다든지, 혹은 인간 안에 내재된 종교적 힘을 불러일으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후자의 맥락에서 우리는 종교라는 말 대신에 ‘영성’ 혹은 ‘영성교육’이라는 표현을 [...] 물론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대안학교가 특정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종교수업은 학생들의 자유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남는 과제는 개신교계 대안학교의 종교교육이 지닌 대안성을 성찰하는 일이다. 이는 ‘대안적 종교교육’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차이에 대한

64) 고병철, 「한국의 종교교육—중등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46(2007), 5-19쪽, 30-33쪽.

65) 고병현·김찬호·송순재·임정아·정승관·하태욱·한재훈, 『교사, 대안의 길을 묻다—대안교육을 위한 아홉 가지 성찰』(이매진, 2009), 184-185쪽. 여기에서 ‘자유’는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국·공립학교의 종교교육 수준을 넘어 본격적으로 종교를 가르친다는, 기존 종립학교의 규범적 종교교육 방식과 달리 ‘삶에 내재된 종교성’을 강조하여 삶이 요구하는 종교적 믿음과 필요성에 대해 개방적·대화적인 방식을 추구 한다는 의미이다.

이해부터 시도해야 한다. 범주상 개신교계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대안학교의 종교교육은 대안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는 종립 대안학교의 종교교육 방향이 대안학교의 대안교육 일반이 지향하는 방향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대안교육이 참된(authentic), 전일적(holistic), 진보적(progressive) 교육으로 표현되고, 교육 본래의 대안(영국), 특별 지원이 필요한 아이를 배려하는 교육(미국), 종래와 현저히 다른 철학을 가진 교육(뉴에이지 사상), 공립 소(6년)·중(3년)·고교(3년)의 학교제도와 다른 교육(일본) 등으로 다르게 이해되듯⁶⁶⁾, 그 뉘앙스가 다양하다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형태도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⁶⁷⁾ 이는 대안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 설정이 어렵고, 나아가 대안적 종교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 설정도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대안교육의 극복 대상이 제도권 교육과 그 이면의 교육철학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대안교육이 기존의 학교교육에 대해 전면적인 무용론과 ‘또 하나의(alternative) 교육’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면 대안교육에 대한 맥락적 이해는 가능할 것이다. 우선 대안교육의 극복 대상에 대해, 대안교육을 ‘제도 안이든 바깥이든 현재 사회의 주류 교육과 다른 새로운 교육’으로 이해하는 측은 공교육 안에서도 대안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⁶⁸⁾ 정부도 기존 교육 패러다임 내의 대안 모색을 지향한다.⁶⁹⁾ 그에 비해 ‘공교육 한계’의 근원을 ‘근대적 가치’에서 찾고 ‘대안적 철학함’을 강조하면서 교육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모색하는 입장도 있다.⁷⁰⁾

그와 관련하여 대안교육은 개인·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시장적, 자연·인간의 근대적 이분법 구도보다 생태학의 원리에 따라

66) 송민영, 「홀리스틱을 지향하는 대안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홀리스틱교육연구』 11-2(2007), 122-123쪽.

67) 송순재, 앞의 글, 47-52쪽.

68) 현병호, 앞의 글, 102쪽. 현병호는 계절학교나 방과후학교 등을 제도권 학교 밖의 새로운 교육으로 이해한다.

69)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69쪽.

70) 김병길·황금섭, 「대안교육에 있어서 ‘대안’의 범주화」, 『교육철학』 19(2001), 3-7쪽;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69쪽; 송순재, 앞의 글, 35쪽, 44쪽. 송순재는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교육의 실상이 일본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 서구식 이론과 체제의 단순한 도입, 군사 문화적 근대화 교육 사이의 혼합물이었고, 그 특징이 권위주의적·경쟁주의적·비인간적·획일주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송순재, 같은 글, 35쪽).

경쟁보다 학습자 간의 협력과 조화를 강조하는 생태적, 기존 공교육에 대한 철학적보다 방법적인 극복을 강조하는 보완적, 기존 공교육의 이념 성향과 인간·자연·사회·세계에 대한 관점의 새로운 해석과 이념을 강조하는 독자적 패러다임으로 범주화되기도 한다. 시장적·보완적 패러다임은 교육을 삶에 대한 기능적·도구적 관점에서, 생태적·독자적 패러다임은 문명사적 전환의 관점에서 공교육의 한계에 접근하는 태도를 취한다.⁷¹⁾ 물론 후자가 학교교육의 무용론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⁷²⁾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논의가 대안적 종교교육이 일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해 방법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 측면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종립 대안학교의 교육이 특정 종교만을 위한 대안과 사회 전체의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정립의 요청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종립 대안학교가 이러한 요청에 주목하지 않은 채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이라는 자기정체성을 내세우면서도 단순히 특정 신앙만을 강조하는 종교교육을 진행한다던, 그 교육은 대안교육이라는 자기정체성을 포기하는 동시에 다종교·다문화 사회라는 전체 한국사회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대안 아닌 대안교육’이 될 수도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의 종립 대안학교의 종교교육에 필요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제1장), 먼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과 종교의 연관성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대안학교운동의 흐름을 민간 차원과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대안학교의 설립이나 특성화학교의 전환에

71) 김병길·황궁섭, 위의 글, 7-14쪽. 독자적 패러다임은 자유를 기존 공교육의 억압성에 대항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주요 요소로 강조하는 식이다. 이런 구분은 대안교육을 제도권 공교육 틀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형태와 사회 전체의 교육문제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형태로 구분하는 송순재의 입장과 유사하다(송순재, 앞의 글, 35쪽).

72) 현병호, 앞의 글, 106-108쪽; 이병환, 앞의 글, 165-167쪽. 근대문명 비판과 아동중심주의 환원이 강조되던 서구의 대안교육 담론에서 기존 학교의 효율성이 긍정되고 학교체제의 점진적·전면적 재구조화 처방을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종교계가 적극 참여하였지만, 양측 모두 딜레마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특성화학교 가운데 종립 대안학교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과 종립 대안학교의 연대 움직임과 특정 종교 중심의 종교교육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종교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대안적 종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개신교계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립 대안학교의 종교교육이 지닌 대안성을 성찰하여 대안적 종교교육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종립 대안학교의 대안적 종교교육에 대한 방향은 대안교육의 일반론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위해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대안적 종교교육이 일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해 방법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 측면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종립 대안학교의 교육이 특정 종교만을 위한 대안과 사회 전체의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명확해진 부분은 종립 대안학교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차원에서 단순히 특정 신앙만을 강조하는 종교교육을 진행하면서 자기정체성을 정립한다면 그 교육이 '대안 아닌 대안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정 신앙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인간 존재는 다종교·다문화 사회라는 한국사회의 상황과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 존재에 적합한 유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안적 종교교육은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필요한 '상호성'과 '개방성'이 가능한 인간 존재의 양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안적 종교교육에서는 다종교·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에게 다양한 종교세계에 대한 지식과 사유, 그리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그에 대한 성찰 계기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개신교계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특정 신앙만을 강조하는 다른 종립 대안학교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록 신앙인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안학교로 설립되었고 그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진행된다면 그 종교교육은 대안적 종교교육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교육이 대안학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명분이나

대안적 교육과정에 배치되어야 하는 명분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나아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한다면, 대안학교의 종교교육은 대안적 종교교육으로서 대안 교육의 일반론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만약 대안학교의 종교교육이 여전히 학생에게 특정 종교만을 정점에 두게 하는 교육이라면, 이는 근대의 합리성과 보편성에 근거하여 개별적 개체의 판단과 개성을 무시한 채 획일성과 권위를 중시한다는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적 가치, 의사소통의 합리성, 공동체적 정체성 등을 지향하는 대안교육의 일반론적 정체성⁷³⁾에 배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종교만을 위한 종교교육이 오히려 대안교육의 가치 실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대안교육이 대안적 인간 존재의 양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단순히 종립 대안학교가 일반 종립학교의 학생보다 더 강한 신앙을 가진 존재만을 양성하거나 모든 것을 특정 종교의 세계관 속에서만 이해하는 존재만을 양성하고자 할 때 그것이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어떤 대안적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대안학교·대안교육과 종교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대안적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를 생산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73) 김문숙, 「'새로운' 현대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대안교육운동」, 『한국사회학』 43-2(2009), 132, 159쪽.

참 고 문 헌

- 강영택,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신앙과 학문』 15-1, 2010.
- 고병철, 「한국의 종교교육-중등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46, 2007.
- 고병현·김찬호·송순재·임정아·정승관·하태욱·한재훈, 『교사, 대안의 길을 묻다-대안교육을 위한 아홉 가지 성찰』. 이매진, 2009.
- 곽광, 『신앙공동체를 지향하는 기독교대안학교』.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참여복지 5개년 계획(교육복지부문)』, 2004.
- _____, 『대안학교백서(1997-2007)』. 2007.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백서』. 2006.
- 김문숙, 「새로운' 현대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대안교육운동」. 『한국사회학』 43-2, 2009.
- 김병길·황공섭, 「대안교육에 있어서 '대안'의 범주화」. 『교육철학』 19, 2001.
- 김선요, 「기독교 대안교육운동에 대한 소고(小考)」. 『백석저널』 2-3, 2002.
- 김철주·고병철, 「중등학교 다문화교육 교과서의 활성화 방향-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2011.
- 김희용, 「대안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31, 2006.
- 송민영, 「홀리스틱을 지향하는 대안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홀리스틱교육연구』 11-2, 2007.
- 송순재, 「한국에서 '대안교육'의 전개과정 및 성격과 주요 문제점」. 『홀리스틱교육연구』 9-2,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2005.
- 윤기종, 『대안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탐구』. 한국학술정보(주), 2008.
- 이병환, 「미국 대안교육의 다양화 경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 『교육행정학연구』 26-1, 2008.
- 이수안, 「지속 가능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로서 '상호관용'과 '상호보살핌」. 『문화와 사회』 7, 2009.
- 이혜영·황준성·강대중·하태욱,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 정병완,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원리와 그 실천방안: 하나님의 교육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현병호, 「대안교육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전망」. 『진보평론』 10, 진보평론, 2001.
- 황병준, 「기독교학교에서의 대학입시에 대한 인식-대안학교와 미션스쿨의 비교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20, 2009.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同 시행규칙〉

〈교육법시행령〉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同 시행령〉, 〈同 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同 시행령〉

《가톨릭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뉴스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GVCS글로벌선진학교 http://www.gemgem.org/?menu_no=1.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기대협/기독교대안교육센터 <http://www.caeak.com>.

기독교대안학교연맹 <http://www.casak.org>.

대안교육연대, 2002. 10, <http://www.psae.or.kr>.

동명고 <http://kdm.hs.kr>.

마그넷스쿨 지원서 <http://www.magnet2528.com>.

서울산업정보학교 부설 대안교육종합센터, 2003. 1, www.daeancenter.or.kr.

서울시대안교육센터, 2001. 4, <http://www.activelearning.or.kr>.

쉐마기독교학교 고교 <http://hig.ishema.org>.

쉐마기독교학교 중학교 <http://mid.ishema.org>.

은혜학교 <http://eh-school.sc.kr/index.html>.

지구촌고 <http://glovillhigh.org>.

태화국제학교 <http://www.thcis.com>.

국 문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다종교·다문화 사회라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종립 대안학교의 종교교육에 필요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과 종교의 연관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대안학교운동의 흐름을 민간 차원과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대안학교의 설립이나 특성화학교의 전환에 종교계가 적극 참여하였지만 양측 모두 딜레마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성화학교 가운데 종립 대안학교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과 종립 대안학교의 연대 움직임과 특정 종교 중심의 종교교육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종교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토대로 대안적 종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개신교계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립 대안학교의 종교교육이 지닌 대안성을 성찰하여 대안적 종교교육 개념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대안적 종교교육이 일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해 방법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 측면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종립 대안학교의 교육이 특정 종교만을 위한 대안과 사회 전체의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종립 대안학교의 종교교육의 방향, 즉 대안적 종교교육의 방향은 대안교육의 일반론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특히 강조한 부분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의 이름으로 단순히 특정 신앙만 강조하는 종교교육을 진행하기보다 그 대안성을 감안하여 대안적 종교교육 개념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종교·다문화 사회라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 존재의 유형, 그리고 생태적 가치, 의사소통의 합리성, 공동체적 정체성 등을 지향하는 대안교육의 일반론적 정체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가 대안학교·대안교육과 종교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대안적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를 생산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1. 6. 27.

수정일 2011. 8. 5.

게재 확정일 2011. 8. 16.

주제어(keyword)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 종립 대안학교(Religious Alternative School),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 대안적 종교교육(Alternative Religious Education), 다종교사회(Multireligious Society),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상호성(Reciprocity)

